

淳于意 醫學思想 考察

—〈史記 倉公傳〉을 中心으로—

金 富 煥 · 朴 炫 局*

I. 序 論

古代에 中國醫學이 어떻게 形成되어 發展되었는가에 對하여 答할 만한 初期 醫學文獻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最近에 發掘된 長沙 馬王堆의 醫學文獻은 戰國에서 秦漢에 이르는 時代의 醫學水準 및 發展過程을 살펴볼 수 있는 重要한 資料이다. 그리고 〈漢書 藝文志〉에 醫學文獻에 관한 많은 內容이 실려 있으나, 現在 傳하고 있는 것은 〈黃帝內經〉뿐이다. 그러나 竹簡이나 帛書에 記錄한 馬王堆醫書는 그 內容이 너무 單純하며, 〈素問〉과 〈靈樞〉로 構成되어 現在 傳하는 〈黃帝內經〉은 오랜 時間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完成되었으며, 醫學理論도 完熟段階이다. 이에 著者는 醫學發展上 馬王堆醫書와 〈黃帝內經〉의 中間段階로 보이는 倉公傳에 나타난 淳于意의 醫學思想을 살펴보고자 한다.

淳于意는 紀元前 約 205年 (或 215年)에 태어나 죽은 해는 확실하지 않으며, 齊나라의 太倉長을 지냈기 때문에 “太倉公” 혹은 “倉公”이라고도 불린다. 司馬遷은 紀元前 約 135年 (或 145年)에 태어나 紀元前 104년에 〈史記〉의 著述을 始作하였으며 죽은 해는 알

수 없다. 100년이 되지 않는 時差를 두고 〈史記 扁鵲倉公列傳〉이 著述되었기에 淳于意의 行迹과 患者를 診療한 記錄은 相當히 眞實되다고 볼 수 있다.(表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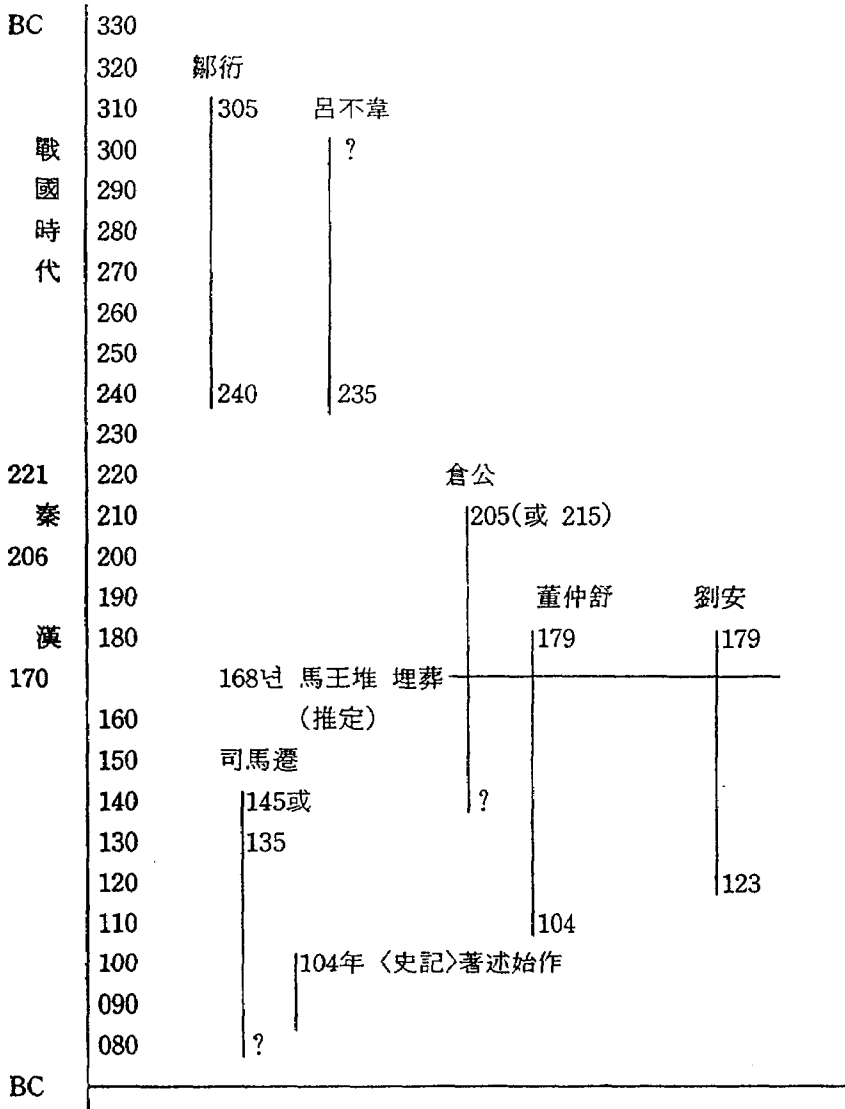
II. 2. 本 論

1. 倉公傳에 나타난 醫學文獻의 考察

倉公傳에서 醫學文獻名을 言及한 部分을 보면 “慶年七十餘 無子 使意盡去其故方 更悉以禁方予之 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死生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 甚精 受之三年”, “慶年七十餘 意得見事之 謂意曰 盡去而方書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生死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甚精 我家給富 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 悉教公 臣意即曰 幸甚 非意之所敢望也 臣意即避席再拜謁 受其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 受讀 解驗之 可一年所”라 하였고, 醫學文獻名을 具體的으로 알수 없는 ‘脈法曰’, ‘法曰’, ‘診脈法曰’, ‘扁鵲曰’, ‘論曰’, ‘師言曰’, ‘病法’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表 1. 主要人物의 活動時代



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臣意聞菑川唐里公孫光善爲古傳方 臣意即往謁之 得見事之 受方化陰陽及傳語法 臣意悉受書之 臣意欲盡受他精方 公孫光曰 吾方盡矣 不爲愛公所 吾身已衰 無所復事之 是吾年少所受妙方也 悉與公母以教人 臣意曰 得見事侍公前 悉得禁方幸甚” 이라 하였고, “臨菑人宋邑 邑學臣意教以

五診歲餘 濟北王 遣太醫高期王禹學 臣意教以經脈高下 及奇絡結 當論俞所居 及氣當上下出入邪逆順 以宜鑱石 定痏灸處 歲餘 菑川王時 遣太倉馬長馮信正方 臣意教以案法逆順論藥法 定五味 及和齊湯法 高永侯 家丞杜信喜脈來學 臣意教以上下經脈 五診 二勢餘 臨菑召里唐安來學 臣意教以五診 上下經脈 奇咳

四時應陰陽重 未成除爲齊王侍醫”이라 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表.2 와 같다.

醫學文獻을 意味하며, ②에서의 ‘方書’는 淳于意在 가지고 있던 醫學文獻을 意味하며, ‘禁方書’는 黃帝扁鵲之脈書를 包含한 陽慶이

表 2.

스승	弟子	가르친 内容이나 傳한 醫學文獻
公孫光	淳于意	方化陰陽 傳語法
陽慶	淳于意	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死生 決嫌疑 定可治 藥論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石神 接陰陽禁書
淳于意	宋邑	五診
	高期, 王禹學	經脈高下 奇絡結 當論俞所居 氣當上下出入 邪逆順 宜鑱石 定罔灸處
	馮信	案法逆順 論藥法 定五味 和齊湯法
	杜信	上下經脈 五診
	唐安	五診 上下經脈 奇咳 四時應陰陽重

以上の 文章에서 醫學文獻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黃帝扁鵲之脈書〉, 〈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等이 있으며, 그以外에 醫學文獻名을 알수 없는 ‘脈法曰’, ‘法曰’, ‘診脈法曰’, ‘扁鵲曰’, ‘論曰’, ‘師言曰’, ‘病法’外에 “古傳方”, “禁方” 等도 있다.

(1) 禁方書

〈倉公傳〉에서 ‘禁方’, ‘方書’, ‘禁方’ 등의 用語를 使用한 文句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慶年七十餘 無子 使意盡去其故方 更悉以禁方予之 傳黃帝扁鵲之脈書 ” ② “盡去而方書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生死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 甚精 我家給富 心愛公 欲盡以我禁方書 悉教公”

③ “見事數師 悉受其要事 盡其方書意 及解論之”

④ “臣意曰 得見事侍公前 悉得禁方幸甚 意死不敢妄傳人”

①에서의 ‘禁方’은 陽慶이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醫學文獻을 意味하며, ③에서의 ‘方書’는 이름을 알수 없는 여러 스승들이 가지고 있던 醫學文獻을 意味하며, ④에서도 ‘禁方’은 公孫光이 가지고 있던 醫學文獻을 말하고 있다.

또한 〈扁鵲傳〉에서 “我有禁方 年老 欲傳與公 公勿泄”, “乃悉取其禁方書 盡與扁鵲”이라 하여, 〈扁鵲傳〉에서의 “禁方” 或은 “禁方書”도 長桑君이 所藏하였다가 扁鵲에게 傳한 醫學文獻을 뜻한다. 그러나 馬王堆出土 醫書에서 禁方, 或은 禁方書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않았으며, 〈扁鵲倉公傳〉後에도 이러한 用語를 使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禁方書’는 司馬遷이 〈史記〉를 著述하기 以前에 傳하여 오던 具體的인 書名이나 作者名이 없는 醫學에 關한 文獻을 通稱하여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黃帝扁鵲之脈書

黃帝扁鵲之脈書는 醫學文獻名으로는 처음으로 黃帝와 扁鵲의 이름이 舉論되는데, 〈史記扁鵲傳〉末에 “至今天下言脈者 由扁鵲也”라

하여 扁鵲과 脈을 關聯시키고 있으며, <漢書 藝文志>에도 <黃帝內經>, <黃帝外經>, <扁鵲內經>, <扁鵲外經>이 있다. 그러나 黃帝扁鵲之脈書가 <黃帝脈書>와 <扁鵲脈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書名이나 著者名이 없이 黃帝와 扁鵲時代부터 傳하여 온다고 믿어지는 여러 醫學文獻을 그렇게 말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일단 <倉公傳>에 나오는 黃帝扁鵲之脈書에 關한 文章을 살펴 보자.

① 使意盡去其故方 更悉以禁方予之 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死生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 甚精

② 盡去而方書非是也 慶有古先道遺傳黃帝扁鵲之脈書 五色診病 知人生死 決嫌疑 定可治 及藥論書 甚精

①과 ②를 살펴보면 陽慶이 淳于意에게 모두 傳한 禁方은 古先道(?)가 물려준 黃帝扁鵲之脈書이며, 그 內容은 五色으로 病을 診察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알며, 疑心나는 것을 判別하며, 治療할 수 있는가를 定하며, 藥에 關한 理論도 아주 精密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漢書 藝文志 方技略>의 “醫經者 原人血脈 經絡 骨髓 陰陽 表裏 以起百病之本 死生之分 而用度 鑿石 湯火所施 調百藥 齊和之所宜”의 文章에서 나타난 內容과 다를 바 없다. 이는 黃帝扁鵲之脈書가 <漢書 藝文志>에 나타난 醫經의 內容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②에 이어 “受其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라 하여 淳于意가 陽慶에게서 받은 文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文章에서는 黃帝扁鵲之脈書가 빠진 것으로 보아 黃帝扁鵲之脈書의 構成이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淳于意가 弟子에게 가르친 部分을 보면 <五診>, <上下經脈>, <奇咳>等 黃帝扁鵲之脈書의 一部分이지, 黃帝扁鵲之脈書를 가르치거나 傳하였다는 內容은 보이지 않는데, 이 또한 위의 여러 醫學文獻을 모아 黃帝扁鵲之脈書가 形成되었음을 말한다.

即, 黃帝扁鵲之脈書는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의 篇으로 構成되어져 있으며, 그 內容은 五色으로 病을 診察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알며, 의심나는 것을 判別하며, 治療할 수 있는가를 定하며, 藥에 關한 理論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淳于意가 38歲 (或은 48歲)인 紀元前 168年에 形成된 것으로 보이는 馬王堆墓에서 出土된 醫學文獻中 “十問”이라 命名된 竹簡을 보면 “黃帝問於天師曰”, “黃帝問於大成曰”, “黃帝問於曹熬曰”, “黃帝問於容成曰”이라는 黃帝와의 問答體로 된 文句가 있으며, 主로 四時陰陽에 順應하여 飲食과 起居를 할 것을 主要한 內容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堯問於舜曰”, “王子巧父問於彭祖曰” 등과 같이 黃帝외의 다른 人物도 나타나며, 黃帝와의 問答體로 된 文章을 <倉公傳>에 나타나는 醫學文獻과 比較하면 너무나 粗朴하며, 또한 馬王堆 出土醫書中 어디에도 扁鵲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淳于意가 黃帝扁鵲之脈書를 얻기 전에 다른 方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그 時代에 黃帝扁鵲之脈書와 다른 內容을 가진 醫學文獻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른 醫學文獻과 함께 黃帝扁鵲之脈書는 <漢書 藝文志>의 醫經으로 자리잡아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黃帝와 扁鵲의 이름이 언제부터 이러한 醫學文獻에 들어오기 始作하였으며, 淳于意의 스승인 陽慶조차 傳해 받았다고 하는 黃帝扁鵲之脈書는 왜 馬王堆墓에서 보

이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秘密스러운 醫書의 傳授方法이다. 古先道(?)에게서 陽慶에게, 陽慶에게서 淳于意에게로 ‘黃帝扁鵲之脈書’가 傳하여지는 過程을 살펴보면 陽慶이 世上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의 子息에게조차 淳于意가 陽慶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할 程度로 徹底한 秘密을 要求한 것으로 보아 ‘黃帝扁鵲之脈書’의 形態는 이미 戰國時代에 갖추어졌으나 世上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淳于意가 漢文帝에게 알려 世上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扁鵲傳>에서도 “我有禁方 年老 欲傳與公 公勿泄”이라 하여 醫學文獻이 世上에 드러남을 꺼려 하였다. 그리고 禁忌 禁止를 뜻하는 ‘禁’字를 使用한 “禁方”, “禁方書”라는 글에서도 閉鎖的인 醫學의 傳授過程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이 齊의 首都 臨菑地域을 中心으로 形成된 醫學思潮는 戰國時代의 混亂한 社會相으로 因하여 秘密스럽게 傳授되다 漢代에 들어와 公開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學派나 地域에 따라 黃帝나 扁鵲을 評價하는 수준이 달랐을 것이다. 淳于意도 처음에는 여러 스승에게 배워 다른 方書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黃帝扁鵲之脈書는 얻지 못하였다. 戰國時代에 形成된 醫學派는 서로 對敵的인 關係로 統一된 文獻을 나누기 어려웠을 것이며 自然히 地域에 따라 서로 다른 學說이 形成되었을 것이다. 卽 齊地方에서 黃帝를 崇尚하는 風習은 있었지만 長沙地域에서는 그렇지 않았기에 馬王堆醫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地域的으로도 馬王堆墓가 있는 長沙地域과

淳于意와 陽慶이 活動한 臨菑地域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醫學文獻의 交流에 障礙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倉公傳>에서 보이는 五行學說의 影響이 後漢時代 사람인 張機의 著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地域的인 影響에 의한 것이든, 學派에 의한 것이든 之間에 前漢時代에는 統一된 醫學思潮가 形成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인다. 그러므로 <漢書 藝文志>에 나타난 醫經도 <黃帝內經>, <黃帝外經>, <扁鵲內經>, <扁鵲外經>, <白氏內經>, <白氏外經>, <白氏傍篇>의 여러 種類로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3) <脈書上下經>

<脈書上下經>, <經脈高下>, <上下經脈>, 을 <倉公傳>에서 언급하고 있고, <素問>에서도 <上下經>, <上經下經>, <上經>, <下經>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脈書上下經>은 <上經>과 <下經>으로 이루어진 脈書를 말하고 있다.

<素問>과 <靈樞>에 나타난 <上經>과 <下經>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上經>은 “氣之通天”을, <下經>은 “病之變化”를 言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馬王堆醫書中에서 “氣之通天”의 內容을 言及하고 있는 것은 竹簡에 쓰여진 “十問”이 있으며, “病之變化”의 內容을 言及하고 있는 것은 帛書에 쓰여진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等”(以下에서 古灸經이라 略稱한다)이 있다. 淳于意가 지니고 있던 <脈書上下經>의 水準을 살펴 보기 위하여 馬王堆醫書와, <史記 倉公傳>과 <靈樞>와 <素問>을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알 수 있었다.

① “十問”에서는 어떻게 하면 天地陰陽四

1) 馬王堆 出土醫書名은 原來 醫書名이 없으나, 여기에서는 <馬王堆醫書考注>에서 命名한 醫書名을 따른다.

표 3.

分類	內 容	素 問	靈 樞
‘上下經’	却念上下經 陰陽從容	陰陽類論	
‘上經下經’	上經 下經 揆度 陰陽	疏五過論	
‘上經曰’	上經曰 夫道者 上知天文 下知地理 中知人事	氣交變大論	
‘上經者’	上經者 言氣之通天也	病能論	
‘下經者’	下經者 言病之變化也	病能論	
‘下經曰’	下經曰 胃不和則臥不安	逆調論	
	下經曰 筋 者 生於肝使內也	痿論	

時的變化에 順從하는 가와, 飲食起居 및 性 生活를 節制하여 疾病을 豫防하고, 無病長壽를 求하는 것을 問答體로 다루고 있다. <倉公傳>에서 病因으로 “汗出伏地”, “沐髮未乾而臥”, “飲酒大醉”, “酒且內”, “好持重”, “欲男子而不可得”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十問”의 內容과 恰似하다. <素問> 生氣通天論篇에서도 “十問”과 形式은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內容은 같다.

② 古灸經에서는 手厥陰心包經에 該當하는 脈이 없는데, <倉公傳>에서도 보이지 않으나, 이것만으로 淳于意가 가진 脈書도 十一脈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古灸經에서는 ‘脈’이라는 글자가 다르며, 脈에 대한 具體的인 記述에서 差異가 나며,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三陰三陽의 構造로 脈을 說明하며, 是動病과 所生病에 關한 內容은 없으나,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脈과 三陰三陽以外에 肩脈, 齒脈, 耳脈 등으로 人體의 一部分과 脈을 聯關시키려 하였고, 疾病도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倉公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是動病이나 所生病이라는 用語가 보이지 않으며, 三陰三陽의 構造로 脈을 說明하고 있다.

④ 古灸經에서는 灸法만 언급되어 있으나, <倉公傳>과 <靈樞>에서는 灸法이외에 針法도

많이 使用하고 있다.

⑤ 古灸經에서는 個別的인 열한가지의 脈에 關한 敍述뿐이지만, <倉公傳>에서는 ‘經脈’, ‘絡脈’의 用語가 나타나며, ‘灸其足厥陰之脈 左右各三所’, ‘刺足陽明脈 左右各三所’ ‘當論俞所居’, ‘定灸處’라 하여 單純한 ‘脈’에서 經絡과 經穴의 概念이 發生하기 始作하지 않았나하는 推測을 可能하게 한다.

⑥ <倉公傳>에서 齊北宮의 司空의 命婦 出於의 病에서 “腹之所以腫者 言厥陰之絡結小腹也 … 臣意即灸其足厥陰之脈 左右各一所”라 하였는데,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足厥陰脈을 灸하여야 할 症狀에 小腹腫이 없으나,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厥陰脈 是動病에 婦人小腹腫이 있다. <靈樞> 經脈篇에서 肝足厥陰之脈의 是動病에 婦人小腹腫이 있다.

⑦ <倉公傳>에서 脈과 臟腑의 關係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는 곳을 보면, 齊나라 章武里의 曹山跗의 病에서 “灸其足少陽脈口 而飲之半夏丸 病者即泄注 腹中虛 又灸其少陰脈 是壞肝剛絕深”, 齊北宮의 司空의 命婦 出於의 病에서 “病主在肺 刺其足少陽脈”, 齊의 中大夫의 病에서 “齟齒 臣意灸其左太陽明脈”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靈樞> 經脈篇과는 脈과 臟腑 配屬이 다르며, 臟腑와

脈을 같이 불허言及한 곳은 없다. 특히 古灸經에서 脈과 聯關된 것을 살펴보면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足少陰脈이 肝과 관련지우며, 齒痛에 手陽明脈을 灸한다고 되어 있으며,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足少陽脈은 心과, 齒脈과 齒痛을 관련시키고, 足少陰脈과 腎, 手少陰脈과 心을 관련지우고 있다. 여기에서는 ⑥와는 다르게 〈倉公傳〉의 脈에 關한 內容이 陰陽十一脈灸經보다는 足臂十一脈灸經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⑧ 〈倉公傳〉 齊나라 章武里的 曹山跗의 病에서 나타나는 “肝一絡連屬結絕乳下陽明”이라는 文章은 古灸經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靈樞〉經脈篇에서 “肝足厥陰之脈…挾胃屬肝”이라 하여 서로 같은 見解를 보이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보았듯이 〈倉公傳〉에 나타난 內容은 古灸經과 〈素問〉, 〈靈樞〉의 中間段階에 있으며, 淳于意가 보고 배운 〈脈書上下經〉도 이와같이 十問, 古灸經과 같은 古代醫書로부터 〈素問〉의 生氣通天論篇이나 〈靈樞〉經脈篇 등으로 發展하여 가는 過程에 있는 醫學文獻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現存하는 〈素問〉과 〈靈樞〉에 나타난 〈上經〉과 〈下經〉의 引用을 찾아보면 〈素問〉에서는 나타나지만 〈靈樞〉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4) 〈五色診〉

馬王堆出土醫書中 ‘養生方’에서는 黃帝가 大成에게 물기를 “百姓의 顏色이 어떻게 하여 거칠며 검푸르며, 어찌하여 緻密하며 하얗게 光澤이 남니까?”라고 하니, 大成이 答하여 “임금께서 살결을 희게 하려면 自別례를 觀察하십시오. 自別례가 먹는 것이 陰陽을 通함에 견줄만 합니다. 푸른 것을 먹으면 푸르게 되고, 누른 것을 먹으면 누르게 되니, 다만 임금께서 드시는 데로 五色이 變하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單純히 五色을 取하는데 따라 顏色이 나타남을 說明하고 있으며, 疾病이나 脈과의 關係에 對하여서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

〈倉公傳〉에서 ‘五色’으로 記錄된 곳도 있으나, ‘五色診’과 同一한 文獻을 말하는 것이며, ‘五色診’이란 五色으로 病을 診察하는 것을 主題로 삼은 醫學文獻으로 보인다.

〈倉公傳〉에서 五色으로 病을 診察하는 部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才人女子豎病：“王召視之 其顏色不變以爲不然”

② 齊丞相舍人奴病：“臣意見之 食閨門外望其色有病氣…告之曰 此傷脾氣也 當至春 膈塞不通 不能食飲 法至夏 泄血死 … 故傷脾之色也 望之殺然黃 察之如死青之茲 衆醫不知 以爲大蟲 不知傷脾 所以至春死病者 胃氣黃 黃者土氣也”

③ 宋建病：“所以知建病者 臣意見其色太陽色乾 腎部上及界要以下者 枯四分所 故以往四五日 知其發也”

④ 臨菑汜里女子薄吾病：“其色澤者 中藏無邪氣及重病”

⑤ 齊中郎破石病：“所以知破石之病者 切其脈 得肺陰氣 其來散 數道至而不一也 色又乘之”

⑥ 齊王侍醫遂病：“公服之不得數溲 亟勿服 色將發臃”.

이상에서와 같이 〈倉公傳〉에서는 單純하게 顏色만 살핀 것이 아니라, 五色을 五行에 配屬시키고, 色과 脈의 相互關係를 살피고, 色의 潤澤도 같이 살펴 五行의 相生相剋關係로 疾病을 把握하고 있으며, 〈素問〉이나 〈靈樞〉의 內容과 크게 다를바 없음을 알 수 있다.

〈素問〉이나 〈靈樞〉에서 引用書籍으로 ‘三色’을 거론한 곳을 보면, 〈靈樞〉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素問〉에서 玉版論要篇의 “請言道之

至數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과 玉機真藏論篇의 “吾得脈之大要 天下之數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이라는 두 곳에서 나타난다. <素問>의 全體의인 內容과 ‘五色’의 文獻名이 나타남을 보아 <素問>이 形成되었을 때에는 ‘五色’이라는 文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奇咳術

<倉公傳>에 나타난 ‘奇咳術’과 關聯된 用語를 使用한 곳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受其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陰陽 外變 藥論”

② “其脈法 奇咳言曰 藏氣相反者死”

③ “臣意教以五診 上下經脈 奇咳 四時應陰陽重”

여기에서 ‘奇咳’, 혹은 ‘奇咳術’은 같은 醫學文獻을 가르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奇咳’는 어떠한 文獻일까?

<素問>이나 <靈樞>에서 ‘奇咳’라는 用語를 使用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奇恒’은 많은 곳에서 醫學文獻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漢文帝(在位期間 紀元前 179年 - 紀元前 157年)의 이름이 恒이다. 皇帝의 이름에 ‘恒’이 들어가니 原來는 ‘奇恒’ 혹은 ‘奇恒術’이라는 醫學文獻이 있었다하더라도 ‘奇恒’, 혹은 ‘奇恒術’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中國古代文化常識>에서도 王力은 “漢文帝的 이름은 恒이므로 恒을 常으로 고쳤고 恒山을 常山으로 고쳤다”, “漢文帝的 이름은 恒이었으므로 春秋時代의 田恒은 田常으로 고쳐졌고…”라 하여 漢文帝時代에는 ‘恒’이라는 글자를 使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史記>의 注에서는 말하길 “正義曰 八十一難云 奇經八脈者 有陽維 有陰維 有陽蹻

有陰蹻 有衝 有督 有任 有帶之脈 凡此八脈者 不拘於經 故云奇經八脈也”라 하여 ‘奇’는 ‘特異하다’, ‘다르다’의 意味로 使用되어 ‘奇咳’를 奇經八脈과 關聯이 있는 文獻으로 본다. 또한 “藝文志有五音奇咳用兵二十三券 許慎云 軍中約也”라 하여 <漢書 藝文志>에서는 ‘咳’를 ‘咳’로 보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特殊한 用語나 暗號를 가르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觀點을 따르면 ‘奇咳’의 意味는 아주 秘密스럽다는 것으로 ‘奇咳術’이란 ‘特異하게 아주 秘密스러운 技術’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奇恒’이라는 뜻도 결국 ‘奇常’, ‘非常’ 등으로 볼 수 있다.

<倉公傳>에서 舉論하고 있는 “上下經”, “五色診”, “揆度”, “陰陽” 등의 古代醫學文獻名이 <素問>에서 “上經”, “下經”, “五色”, “揆度”, “陰陽”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奇恒”도 淳于意時代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奇恒”이 있었어도 “奇恒”이라 불리워 지지 못하고 다른 이름, 예를 들면 “奇常”이라 불리워졌을 것이나, <倉公傳>에서는 “奇常”이라는 醫學文獻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倉公傳>에서 나타나는 다른 醫學文獻名이 그 以後의 醫學文獻, 예를 들어 <素問>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유독 “奇咳”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奇咳”가 淳于意時代에 있었지만 그 이후 消失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奇咳”라는 이름이 그 當時에만 使用되었고, 그 以後에는 그러한 이름을 使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漢文帝 앞에서 淳于意이 言及하였던 “奇咳”는 實際로 “奇恒”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倉公傳>에 나타나는 “奇咳”를 “奇恒”과 같은 醫學文獻인 것으로 여기고,

〈素問〉과 〈靈樞〉에 나타난 “奇恒”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素問 玉版論要篇 “余聞揆度奇恒 所指不同 … 奇恒者言奇病也 …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一 ”

② 素問 玉機真藏論篇 “天下之數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一 ”

③ 素問 疏五過論篇 “善爲脈者 必以比類 奇恒從容知之 爲工而不知道 此診之不足貴 此治之三過也 ”,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下經 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 ”

④ 素問 病能論篇 “論在奇恒陰陽中”, “奇恒者 言奇病也 所謂奇者 使奇病不得以四時死也 恒者得以四時死也”, “奇恒”을 醫學文獻으로 볼 수 있는 곳은 〈素問〉에 네 편이 있으며, 〈靈樞〉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素問〉에 나타난 “奇恒”은 때에 맞지 않게 죽는 특이한 疾病을 다루고 있는 醫學文獻으로, 〈倉公傳〉에 있는 “奇咳”도 “奇恒”과 같이 때에 맞지 않게 죽거나, 나타나는 疾病을 다른 것으로 보인다.

(6) 揆度

揆度은 〈倉公傳〉에서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 ”라 하여, 陽慶이 淳于意에게 傳하였다고 한다. 揆度이 어떠한 內容의 文獻이었는지 알기 위하여 〈素問〉과 〈靈樞〉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① 素問 病能論篇 “揆度者 切度之也… 所謂揆者 方切求之也 言切求其脈理也 度者得其病處 以四時度之也 ”

② 素問 玉版論篇 “黃帝問曰 余聞揆度奇恒 所指不同 用之奈何 岐伯對曰 揆度者 度病之淺深也… 揆度奇恒 道在於一”, “陰陽反他 治在權衡相奪 奇恒事也 揆度事也 ”

③ 素問 玉機真藏論篇 “天下之數 五色脈變

揆度奇恒 道在於一 ”

④ 素問 疏五過論篇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下經 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 ”

위와같이 〈靈樞〉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素問〉에서만 나타나는 〈揆度〉이라는 말은 醫學文獻名으로 그 內容은 診脈을 하여 그 脈理를 求하며, 또한 그 病處를 얻어 四時와의 關係를 헤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陽慶이 淳于意에게 傳한 書籍으로는 “揆度”이 言及되고 있으나 다른 醫學文獻과는 달리 “揆度”을 弟子에게 가르쳤다는 內容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揆度”이 〈素問〉에 引用되는 것으로 보아, 倉公以後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揆度”을 弟子에게 가르쳤다는 內容이 보이지 않는 理由로 두가지를 假定해 볼 수 있다. 첫째로 淳于意가 陽慶에게서 “揆度”을 배웠으나, 弟子에게는 아예 가르치지 않았다는 假定과, 둘째로 陽慶에게서 받은 “揆度”을 基礎로 淳于意가 보다 發展된 醫學文獻으로 만들어 弟子에게 가르쳤다는 假定이다.

淳于意가 弟子에게 傳한 內容을 보면 表 4.와 같다.

물론 弟子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表 4.에 나타난 人物이 〈倉公傳〉에서 淳于意의 弟子로 舉論된 代表的인 人物이다. 그런데 가르친 內容을 仔細히 보면 宋邑과, 杜信에게서는 特徵的인 學術分野가 보이지 않으나, 高期와 王禹學은 經絡, 經穴, 經絡流注, 針, 灸 등의 針灸學分野를, 馮信은 本草와 方劑分野를 專門的으로 배웠고, 唐安은 여러 가지 疾病과 診斷에 관한 內容을 주로 다루고 있다.

〈素問〉에서 살펴 보았듯이 “揆度”의 內容은 診脈을 하여 그 脈理를 求하며, 또한 그 病處를 얻어 四時와의 關係를 헤아리는 것

表 4.

스승	弟子	가르친 内容이나 傳한 文獻
倉公	宋邑	五診
	高期 王禹學	經脈高下 奇絡結 當論俞所居 氣當上下出入 邪逆順 宜鑱石 定罔灸處
	馮信	案法逆順 論藥法 定五味 和齊湯法
	杜信	上下經脈 五診
	唐安	五診 上下經脈 奇咳 四時應陰陽重

이라 하였으니, 唐安에게 가르쳤다고 한 “四時應陰陽重”이 “揆度”과 別般 差異가 없는 内容으로 淳于意在 修訂補完하여 形成된 醫學文獻이거나, 아니면 “四時應陰陽重”이 文獻名이 아니고 但只 “揆度”의 内容을 말하였을 수도 있다. 이와같이 “揆度”을 淳于意在 弟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보다는 오히려 “四時應陰陽重”과 같은 文獻으로 發展시켰다고 보나, 어느 쪽이든 明確하게 밝힐 根據는 아직 없으며 더욱 研究 하여야 할 것이다.

淳于意를 비롯하여 그의 弟子 宋邑, 馮信, 唐安이 臨菑人³⁾이며, 또한 前漢時代의 公孫光, 陽慶, 楊中倩도 臨菑人이다. 이것은 臨菑에서 많은 醫師가 排出되었음을 意味하며, 서로가 師弟關係로 맺어져 學派를 形成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公孫光이나 陽慶이 모두 “禁方”이나 “秘傳方”을 가지고 있으며, 淳于意에게 가르치며 남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였으니 排他的인 學派를 形成하여 傳하여져 왔을 可能性이 크다. 이러한 醫學學派는 淳于意在 받은 “黃帝扁鵲之脈書”라는 文獻名을 볼 때 黃帝나 扁鵲을 높이 받드는 것으로 보인다. 즉 齊나라 稷下에서 鄒衍의 學說을 影響받고 黃帝나 扁鵲을 높이 받드는 醫家들은 戰國時代의 混亂한 時代를 無事히 지내기 위하여 秘密스럽게 齊의 臨菑人들을

中心으로 傳授되다 漢文帝의 淳于意에 대한 關心과 統一國家의 學文獎勵政策에 힘입어 秘傳되던 醫學文獻이 公開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倉公傳〉에서 나타나는 〈上經〉, 〈下經〉, 〈五色〉, 〈奇咳〉, 〈揆度〉 등의 여러 醫學文獻이 〈素問〉에서만 나타나고, 〈靈樞〉에서는 보이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內經靈素考〉에서는 〈靈樞〉가 〈素問〉보다 먼저 形成된 책이며, 둘은 獨立된 著作이라고 한다. 이 見解를 따르면 〈靈樞〉가 編輯된 時期는 淳于意時代이거나 그 以前이며, 〈素問〉은 淳于意時代 以後에 編輯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靈樞〉가 淳于意時代 以後에 編輯된 文獻이라면 〈素問〉과 〈靈樞〉는 學派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編輯되었기 때문에 〈素問〉에서는 〈倉公傳〉에서 言及된 醫學文獻이 나타나, 〈靈樞〉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素問〉과 〈靈樞〉가 서로 다른 學派에 依하여 編輯되었다면 〈素問〉과 〈靈樞〉의 合本으로 된 現在 傳하는 〈黃帝內經〉을 〈漢書 藝文志〉에 나오는 〈黃帝內經〉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現在 傳하는 〈黃帝內經〉을 〈素問〉과 〈靈樞〉로 完全히 分離하여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나, 이 點에 關하여서는 더 研究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中國歷代名醫錄 參照

(7) 陰陽, 接陰陽禁書

淳于意가 陽慶에게서 받은 醫學文獻中 ‘陰陽’이라는 單語가 들어가는 醫學文獻으로 “陰陽”과, “接陰陽禁書”의 두가지가 있다. “接陰陽禁書”는 後代의 醫學文獻에서 보이지 않으며, “陰陽”은 〈素問 疏五過論篇〉에서 “謹守此治 與經相明 上經下經 揆度陰陽 奇恒五中 決以明堂 審於終始 可以橫行”라 하였고, 〈素問 陰陽類論篇〉에서 “却念上下經 陰陽從容 子所言貴 最其下也”라 하여 두 곳에 나타난다.

“陰陽”의 內容이 어떠한지에 關하여서는 지금 알아볼 길이 없으나, 단지 陰陽에 關한 包括的인 內容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馬王堆出土醫書에서 이미 房中術에 關한 內容이 나타나며 〈倉公傳〉에서도 病因의 많은 部分을 性關係에서 找은 것으로 보아 “接陰陽禁書”도 역시 房中術에 關한 內容을 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8) 外變, 藥論, 石神

“外變”이라는 文獻은 〈倉公傳〉에서 보이나, 弟子들에게 傳하였다는 記錄은 없으며, 〈素問〉이나 〈靈樞〉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素問〉과 〈靈樞〉에 “外揣篇”, “五變篇”, “脈變”이 있으나 “外變”과의 關係는 알 수 없다.

“藥論”은 藥物에 關한 專門的인 文獻이나, “黃帝扁鵲之脈書”의 影響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素問〉이나 〈靈樞〉에서는 藥物에 關한 內容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馬王堆出土醫書의 “五十二病方” 등에 많은 藥物이 나오며, 淳于意가 弟子 馮信에게 “論藥法”, “定五味”, “和齊湯法” 등을 가르쳤으며, 患者에게 使用한 藥物療法으로 湯種類 以外에 丸藥의

服用과 藥酒 및 坐藥을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藥論”은 相當한 水準의 藥物專門書로 여겨지며 淳于意도 藥物의 使用에 있어 該博한 知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石神”은 後代의 醫學文獻에 보이지 않는다. 陽慶이 淳于意에게 傳한 文獻中 針灸療法에 關한 文獻으로는 “石神”뿐이며, 淳于意가 高期나 王禹學에게 가르치거나 傳한 內容을 보면 “經脈高下 奇絡結 當論俞所居 氣當上下出入邪逆順 宜鑿石 定腧灸處”라 하였으며, 淳于意가 治療한 例에서 “刺…脈”, “灸…脈” 등의 表現을 하고 있으며, 刺療法과 灸療法이 高루 使用되고 있다. 이로 보건데 “石神”은 아마도 腧石에 關한 文獻인 것으로 생각된다.

2.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診療에 대한 考察

淳于意가 診療한 患者가 但只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만은 아니겠지만, 〈倉公傳〉에서 淳于意가 診療한 患者를 살펴봄으로 淳于意의 醫學思想을 考察하고자 한다. 〈倉公傳〉에서는 25 項目에 걸쳐 患者를 診療한 內容을 記錄하고 있으며, 淳于意가 診療하지는 않았지만 文王의 病에 對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類型

患者를 診療한 內容을 病名, 病因, 病理, 藥物 등으로 分類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먼저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病名과 患者의 社會的 地位를 〈史記 倉公傳〉原文 順序에 따라 살펴 보면 表 5.와 같다.

위의 表 5.에서 보듯이 淳于意는 內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에 걸쳐 多方面에 뛰어난 醫術을 發揮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患者의 社會的 地位도, 王에서부터 奴婢까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廣範圍한 階層의 患者를 보

4) 馬王堆 出土醫書中 〈十問〉, 〈合陰陽〉, 〈天下至道談〉이라 이름된 竹簡을 말한다.

表 5.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類型

患者名	病名	患者의 職責	診療分野
成	疽	齊 侍御史	內科
	氣屈病	齊王中子諸嬰兒小子	小兒科
循	湧疝	齊 郎中令	內科
信	熱病氣	齊 中御府長	內科
	風痲客脬	齊王太后	內科
曹山附	肺消痲	齊 章武里人	內科
潘滿如	遺積癥	齊 中尉	內科
趙章	迴風	陽虛侯 相	內科
	風蹶	濟北 王	內科
出於	氣疝	齊北宮 司空의 命婦	內科
	熱蹶	故濟北王 阿母	內科
豎	傷脾	濟北王의 侍者	內科
	齩齒	齊 中大夫	齒科
	懷子而不乳	菑川王의 宮女	婦人科
	傷脾氣	齊丞相 舍人의 奴婢	內科
	蹶上	菑川王	內科
宋建	腎痺	王后 弟	內科
韓女	內寒月事不下	濟北王 侍者	婦人科
薄吾	蟻瘻	臨菑汜里 女子	內科
	迴風	齊 淳于司馬	內科
破石	肺傷	齊 中郎	內科
遂	中熱	齊王 侍醫	內科
	痺	陽虛侯 (齊王)	內科
成開方	苦奮風	安陽 武都里	內科
項處	牡疝	安陵 阪里의 公乘	內科
		文王	神經精神科

았음을 알 수 있다.

(2)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病因과 診斷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病因과 診斷方法
에 關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病因으로 擧論된 것을 보면, 內傷으로 飲
酒且內, 憂, 盛怒而接內, 飲酒大醉, 傷脾氣,
好持重, 飽食而疾走等を 들고 있으나, 飲酒와

房事가 가장 많으며, 外感으로 當浴流水, 汗
出伏地等を, 外傷으로 墮馬僵石上을 들고 있
다. 그런데 齊의 中大夫 病에서 蟲齒의 原因
으로 “風及臥開口 食而不嗽”라 하였는데
食事後에 양치질을 하지 않아 蟲齒가 發生
하였다고 보는 見解는 相當히 合理的인 見
解이다. 그리고 文王의 病에서는 病이 아니며,

젊은 사람이 活動을 하지 못하여 發生하였다고 하여 庸醫가 病因을 알지 못하고 治療를 하여 오히려 病을 惡化시켰음을 나무라며, 가벼운 運動療法을 主張한다.

診斷方法에 있어 望, 聞, 問, 切의 四診에 뛰어났으나, 특히 脈診과 望診에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原文에서 脈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濁, 靜, 長, 弦, 和, 代, 躁, 數, 大, 清, 堅, 緊, 深, 小, 弱, 滑, 實, 齏, 散이라 하여 19種類의 脈이 나타난다. <王叔和脈經>에 나타나는 脈이 浮, 芤, 洪, 滑, 數, 促, 弦, 緊, 沈, 伏, 革, 實, 微, 澁, 細, 軟, 弱, 虛, 散, 緩, 遲, 結, 代, 動인 것을 보면 서로 같은 것도 있으며, 다른 것도 있으나 대체로 倉公傳에 나타난 脈象의 表現이 <王叔和脈經>의 脈象과 別般 差異가 없다. 이는 淳于意가 脈診方面에 있어 卓越한 境地에 이르렀다는 것을 뒷바침하고 있다.

또한 그는 脈診뿐 아니라 望診에도 뛰어나 齊丞相舍人奴病, 宋建病, 臨菑汜里薄吾病에서와 같이 五色 및 五行配當에 따른 臟腑配屬으로 患者를 보기만 하여도 疾病의 發生과 그 豫候를 알 수 있었다.

倉公傳의 原文에 나타난 臟腑나 經絡을 살펴보면 臟腑로는 肝, 心, 脾, 肺, 腎의 五臟이 모두 있으며, 胃, 腸, 膀胱도 있다. 經絡으로는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脈이 手足과 關聯되어 說明된다. 經絡과 關聯시킨 六腑는 없으며, 太陽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倉公傳의 어느 곳에서도 經絡과 臟腑의 關聯性을 말하고 있지만, 臟腑와 經絡을 <靈樞經脈篇>과 같이 말하고 있는 곳은 없다.

馬王堆出土醫書中 “足臂十一脈灸經”을 보면 三陽三陰이 手足과 關聯되어 足太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太陰脈, 足厥陰脈, 手太陰脈, 手少陰脈, 手太陽脈, 手少陽脈, 手陽明脈⁵⁾의 順序로 記錄되어 있다. 이中에서 臟腑와 脈의 相互關聯을 說明하고 있는 곳은 단지 手太陰脈의 “出腋 內兼之心”으로, 太陰脈이 心과 서로 이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太陽脈, 少陽脈, 陽明脈, 肩脈, 耳脈, 齒脈, 太陰脈, 厥陰脈, 少陰脈, 手太陰脈, 手少陰脈의 順序로 記載되어 있다. 太陰脈에서 “太陰脈 是胃脈”이라 하며, 手太陰脈에서 “出臂內陰 入心中”이라 하였고, 手少陰脈에서 “出臍內陰 入心中”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古代東洋醫學의 經絡理論은 實際的인 解剖學的 觀察에서 始作하였으나 解剖學的인 實際 構造物과는 關係없이 漸次 陰陽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아 經絡臟腑學說로 體系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體系化 過程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倉公傳에서는 馬王堆醫書보다 洗練된 三陰三陽理論과 臟腑에 對한 說明을 하지만, 三陰三陽과 六臟六腑를 連繫시킨 것은 찾아 볼 수 없었다.

(3)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治療

표 7과 같이 淳于意는 여러가지 方法의 藥物療法과 針灸療法, 그리고 찬물을 이용한 濕布療法 및 運動療法을 使用하고 있는데 먼저 藥物療法에 대하여 살펴보자. 藥物療法中에서 먼저 물을 藥物과 같이 달여 그 汁을 取하는 것으로 下氣湯, 火齊湯, 液湯火齊, 苦蔘湯, 柔湯, 火齊米汁, 火齊粥이 있다. 이러한 이름의 藥物이 무엇으로 構成되어 어떻게 調劑되는가에 대하여서는 仔細히 알 수 없다. 山田慶兒⁶⁾는 特히 火齊를 “熟한 材料와 生材料를 調合하여 燻을 때는 一火의 加減으로

5) 實際의 文字와는 다르나, 認識하기 쉽게 現代의 意味로 바꾸었다.

6)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의 研究>中 湯液의 起源 p.101~102 .

表 6.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病因과 診斷方法

診斷方法	原文에 나타난 脈	病 因	原文에 나타난 臟腑나 經絡
脈診	濁, 靜, 長, 弦, 和, 代	飲酒且內	腸, 胃, 肝, 少陽, 陽明
脈診	濁, 躁, 數	憂	心
脈診	大, 數	內	
脈診	清, 濁	當浴流水	腎, 太陰
脈診	堅, 緊, 大, 躁	流汗出滿	浮, 腎, 太陰, 膀胱
脈診	代, 躁, 大	盛怒而接內	肺, 肝, 心, 足少陽脈, 少陰脈, 陽明脈
脈診	深, 小, 弱, 緊, 代	酒且內	脾
脈診	滑	酒	胃
脈診	濁	汗出伏地	心
脈診	大, 實	欲溺不得因以接內	肺, 足少陽脈, 膀胱, 足厥陰脈
聞診		飲酒大醉	
脈診			脾
望診		風及臥開口食而不嗽	左手陽明脈
脈診	躁		
望診	望之殺然黃 察之如死青之茲	傷脾氣	脾, 胃
脈診		沐髮未乾而臥	足陽明脈
望診	太陽色乾, 腎部上及界要以下者枯四分所	好持重	腎
脈診	奮, 弦	欲男子而不可得	腎, 肝
脈診	其尺索刺蠟而毛美奉髮	寒濕	
觸診, 望診			
脈診		飽食而疾走	
脈診, 望診	散, 數	墮馬僵石上	肺
望診			
脈診		內	
脈診	腎反肺脈	數飲酒以見大風氣	腎, 肺
脈診		內	肺
聞診		非病	

표.7 倉公傳에 나타난 患者의 治療에 關한 內容

★ 표시는 淳于意外의 다른 醫師가 使用한 方法

疾病名이나 主要症狀	服藥法	針灸法	其 他
疽			不治
氣鬲病	下氣湯		
湧疝	火齊湯		
熱病氣	液湯火齊		
風癰客睥	火齊湯		
肺消癰	半夏丸★	灸其足少陽脈口★ 灸其少陰脈★	不治
遺積癥			不治
迴風			不治
風蹶	藥酒		
氣疝	火齊湯	刺其足少陽脈★, 灸其足蹶陰之脈 左右各一所	
熱蹶		刺其足心各三所	
傷脾			不治
齟齒	苦蔘湯	灸其左手陽明脈	
懷子而不乳	萸蕩藥一攝以酒飲之 飲以消石一齊		
傷脾氣			不治
蹶上		以寒水拊其頭 刺足陽 明脈各三所	
腎痺	柔湯		
內寒月事不下	竄以藥		
蟻癩	飲以芫華一攝		
迴風	火齊米汁		
肺傷			不治
中熱	五石★		不治
痺	火齊粥, 丸藥		
苦畚風			不治
牡疝			不治
喘, 頭痛, 目不明		灸★	不當醫治로 가벼운 運動으로 瀉氣를 主張

目的하는 물건을 만드는 操作法”으로 보며, 이러한 火齊라는 操作法에 의하여 調劑된 것이 火齊湯, 液湯火齊, 火齊米汁, 火齊粥이라 하여, 下氣湯, 苦蓼湯, 柔湯과 區分한다. 그러나 어떻든 淳于意는 藥物 或은 穀物을 달이는 方法으로 疾病을 治療하였음은 틀림없으며 그 種類도 多樣하였고, 丸藥의 服用과 藥酒및 坐藥도 使用하고 있다. 特記할 만한 것은 齊王侍醫 遂가 五石을 服用하면서 淳于意에게 말하길 “夫藥石者有陰陽水火之齊 故中熱即爲陰石柔齊治之 中寒即爲陽石剛齊治之”라 하여 그 當時에 服石하는 風習이 盛行하였으나, 淳于意는 “然必審診 起度量 立規矩 稱權衡 合色脈 表裏有餘不足順逆之法 參其人動靜與息相應 乃可以論”이라 하여 盲目的으로 服石하는 風習을 批判하고 있다.

針灸療法에서는 馬王堆醫書에서는 단지 灸… 脈의 形態로 針法만 舉論하였으나, 倉公傳에서는 “刺… 脈”, “灸… 脈”의 形態로 針法과 灸法을 같이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素問>이나 <靈樞>에서 보이는 經穴의 名稱이나 概念은 아직 形成되지 아니하였으며, “… 脈(左右)各… 所”라 하여 經穴의 位置觀念이 漸次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菑川王病에 찬물로 머리를 濕布하는 方法을 使用하였으며, 文王의 病이 氣의 疏通이 잘 되지 않아 發生하였으므로 飲食을 調節하고 가벼운 散步를 하여야한다고 主張하여 단지 藥物이나 針灸療法으로 患者를 治療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III. 結 論

前漢時代의 代表的인 醫家로 活動한 淳于意는 臨菑人으로 公孫光을 비롯한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며, 특히 같은 臨菑人인 陽

慶에게서 많은 影響을 받았다. 陽慶은 鄒衍과 같은 地域 사람이며, 같은 時代 사람이므로 陰陽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陽慶은 옛부터 傳하여 오던 “黃帝扁鵲之脈書”라는 이름의 “禁方”을 淳于意에게 秘密스럽게 傳하였으며, 그 內容은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外變”, “藥論”, “石神”, “接陰陽禁書”로 構成되어 있다.

陽慶이 淳于意에게 傳한 “黃帝扁鵲之脈書”라는 이름으로부터 이미 秦漢時代以前에 黃帝나 扁鵲의 이름이 醫學에 들어왔으며, <漢書藝文志>에 나오는 <黃帝內經>, <黃帝外經>, <扁鵲內經>, <扁鵲外經> 등의 初期形態도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脈書上下經”은 馬王堆醫書에서 出土된 “十問”과 “古灸經”보다는 發展된 脈書로 보이며, <素問>과 <靈樞>의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나, 淳于意가 보고 배운 <脈書上下經>은 馬王堆醫書와 같은 古代醫學文獻으로부터 <素問>의 生氣通天論篇이나 <靈樞>의 經脈篇 등으로 發展하여 가는 過程에 있는 醫學文獻임을 알 수 있다. “五色診”은 五色을 五行에 配屬시키고, 色과 脈의 相互關係를 살피고, 色의 潤澤을 같이 살피며, 五行의 相生相剋關係로 疾病을 把握하는 것으로 보아 <素問>이나 <靈樞>의 水準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奇咳術”은 <素問>에서 인용된 “奇恆”과 같은 文獻으로 보이며, 그 內容은 때에 맞지 않게 죽거나, 나타나는 疾病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揆度”의 內容은 診脈을 하여 그 脈理를 구하며, 病處를 알아 四時와의 關係를 헤아리는 것이다. “陰陽”은 그 內容이 어떠한 文獻이었는지 알아 볼 길이 없으나, 但只 陰陽에 關한 包括的인 內容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接陰陽禁書”는 後代의 房中

術에 影響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外變” 및 相當한 水準의 藥物專門書로 여겨지는 “藥論”과 疔石에 관한 專門書로 여겨지는 “石神”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醫學文獻名으로 살펴 본 결과 淳于意의 學術思想은 齊의 稷下學文을 繼承하여 <漢書 藝文志>의 古醫經을 完成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倉公傳>에 나타난 醫學文獻은 대부분이 <素問>에서 文獻名으로 記載되어 있으나, 特異하게도 <靈樞>에서는 한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素問>과 <靈樞>가 <黃帝內經>이 <素問>과 <靈樞>로 構成되어 있다는 一般的인 見解를 疑心하게 한다.

淳于意의 診籍을 살펴보면 內科, 婦人科, 小兒科, 五官科에 걸쳐 多方面에 뛰어난 醫術을 發揮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王에서부터 奴婢까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廣範圍한 階層의 患者를 보았다. 그는 望, 聞, 問, 切의 四診에 뛰어났으나 특히 切診과 望診에 뛰어났다. 이미 <王叔和脈經>에서 볼 수 있는 脈狀의 大部分을 말하고 있으며, 望診도 五行相生相剋으로 예후를 說明하였다. 病因으로 內傷, 外感, 外傷을 모두 말하고 있으며, 蟲齒의 原因을 食事後에 양치질을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 合理的인 思考로 病因을 구하려 하였다. <倉公傳>에서는 馬王堆醫書보다는 세련된 三陰三陽理論과 臟腑에 關한 說明을 하지만, 三陰三陽과 臟腑를 바로 連結시킨 것은 없었다. 淳于意는 여러가지 方法의 藥物療法과 針灸療法, 그리고 찬 물을 利用한 濕布方法 및 運動療法을 使用하였다. 그는 藥物療法으로 藥物 혹은 穀物을 달여 疾病을 治療하였는데 그 種類가 多樣하며, 丸藥의 服用과 藥酒 및 坐藥도 使用하고 있다. 特히 그 當時 流行하던 服石風習을 盲目的으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針灸療

法에 있어 그는 針法과 灸法을 같이 使用하였으나, 아직 經穴의 概念이 形成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外에도 濕布療法과 運動療法도 使用하여 病因에 따라 여러가지 治療方法을 使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參考文獻

1. <漢文大系>史記列傳,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67年.
2. 南晚星譯, 史記列傳, 서울, 乙酉文化社, 1983年.
3. 段玉裁撰, 說文解字注, 台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民國72年.
4. 馬持盈註, 史記今註,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76年.
5. 馬天祥 蕭嘉祉編著, 古漢語常用通假字字典, 西安, 西安新華印刷廠, 1989年.
6.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註篇, 論考篇,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昭和60年.
7. 楊士孝注, 二十六史醫家傳記新注,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6年.
8. 王叔和, 王叔和脈經,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民國69年.
9. 王力著 李鴻鎮譯, 中國古代文化常識, 서울, 螢雪出版社, 1989年.
10. 李春植 辛勝夏共著, 中國通史, 서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6年.
11. 任應秋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年.
12. 張豈之主編, 中國歷史大辭典 思想史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年.
13. 張秉楠輯注, 稷下鈞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年.
14. 張習孔 田珏主編, 中國歷史大事編年, 北

- 京, 北京出版社, 1986年.
15. 周一謀 籙佐桃主篇,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年.
16. 陳居霖, 中國歷代名醫錄, 香港, 現代中醫藥學院, 中華民國66年(1977年).
17. 陳舜臣著 이용찬역, 중국고적발굴기, 서울, 대원사, 1988年.
18.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高文社, 1980年.
19.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서울, 高文社, 1980年.
20. 洪元植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年.
21. 丸山敏秋, 黃帝內經と中國古代醫學, 東京美術, 東京, 昭和63年.